



CES 2023에 간 사람도 잘 모르는 핵심 기술 트렌드와 숨겨진 인사이트

2023. 1. 19

김학용 소장

IoT전략연구소

CES 2023의 주제: Be In It

Be in it 의 의미 : 빠져 들다 → 몰입하다

무엇에 빠져들라는 혹은 몰입하라는 이야기일까?



CES 2023 Tech Trends to Watch

6 Key Technology Themes by CTA



Enterprise Tech Innovation



Metaverse / Web 3.0



Transportation / Mobility



Health Technology



Sustainability



Gaming and Services

내돈내산 김학용이 뽑은 주요 트렌드

- 기술 및 비전보다는 실용성과 현실성(real) 강조
-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의 시작은 생존(survival)
- 5G 및 모바일에서 모빌리티(Transportation)로
- 보이지 않는 중국, 중국(China)은 어디에!!
- 초연결(hyper-connectivity)을 넘어 앰비언트(Ambient)로
- AI Everywhere, 실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한 인공지능
- 건강(수면, 소변, 정신)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



중요한 것은 현실(Reality)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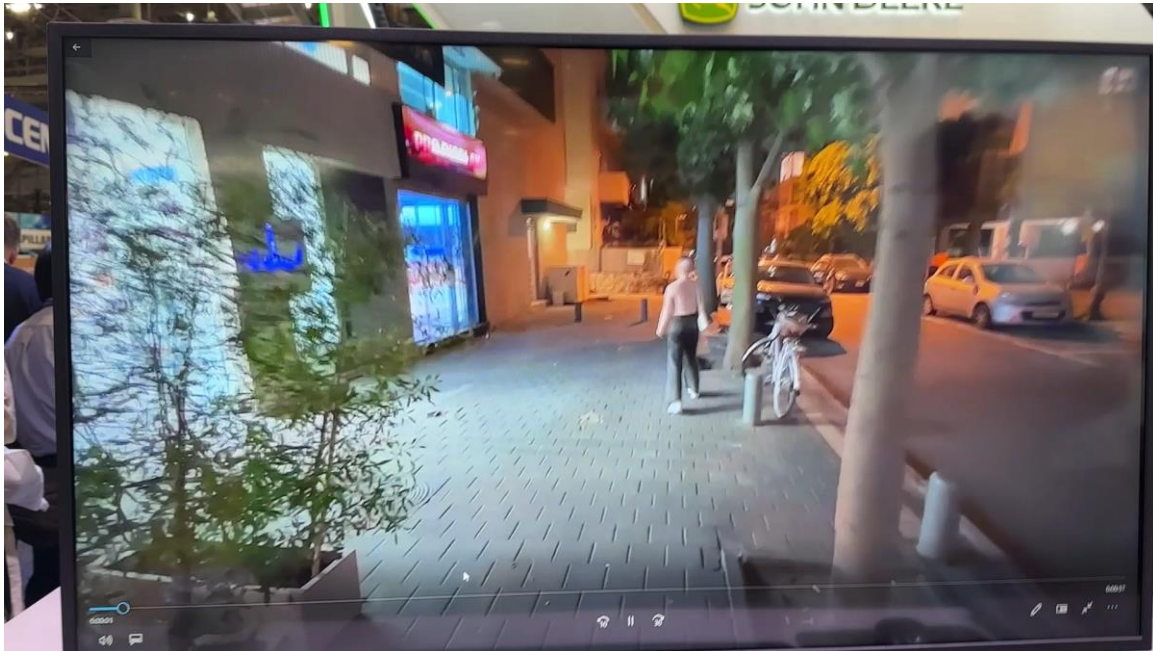
기술 및 비전보다는 실용성 및 현실성 강조

- ◆ 기술경쟁을 하기보다는 당장에 매출로 연결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분야에 적용
 -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기업들은 비용 절감 &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 도입
 - 승용차 자율주행 → 운반 로봇, 농기계, 보트, 청소기, 잔디깎이, 유모차, 휠체어 등에 자율주행 기술 적용
 - 제품의 성능이나 사양보다는 고객가치 & 고객경험 강조
→ '혁신의 부재' 라는 지적 → **혁신 대상의 변화**



Sustainability의 시작은 Survival

- ◆ 비즈니스 모델(BM)의 변화를 통해 드러낸 생존 욕구
 - 개인(B2C) 시장 주목하던 메타버스 기업들, 기업(B2B) 시장 주목
 - 디지털 트윈, Metaverse of Things → Touchcast의 Metaverse Cube 등
 - 고가 판매 전략 → 저가 판매 + 구독 서비스 (VinFast, Withings, Vivoo, MS 등)
 - 큰 감흥이 없는 Energy Saving과 Green → 삼성전자, SK, 벤츠 등 여전히 선도 기업들만 강조



5G 및 모바일에서 모빌리티(Mobility)로 전환

◆ 스마트폰보다 더 많았던 전기차 및 모빌리티 관련 전시물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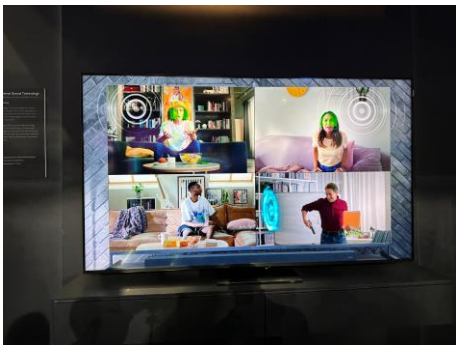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 신제품 및 모바일 솔루션이 보이지 않음 → 스마트폰은 데모용 도구
- 반면, 벤츠, BMW, 폭스바겐은 물론 베트남의 VinFast, 튀르키예의 Togg 등 다양한 전기차 제조사 총출동
- 전장 부품, 배터리, 센서, 전기충전기, 3D Map, in-Vehicle Service Platform 등 관련 기업 대거 참가
- 과연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가 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할 것인가?
→ 세 가지 진화 방향 중의 하나!!



보이지 않는 중국 (Invisible China)

◆ 3번째로 많은 기업(504개)이 참가한 중국은 어디에?

- 미중 분쟁 및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 기업 및 중국인이 잘 안 보임
→ 미국 기업 중 일부는 사실상 중국 기업
- 화웨이 및 계열사의 불참 → MWC 및 IFA 참가를 통해 반미 전선 유지 및 유럽 국가와의 유대 강화
- 스마트홈 분야에 대거 참여 → Tuya 및 TP-Link 외에 다수의 스마트홈 디바이스 기업 참여



초연결을 넘어 앰비언트(Ambient)로

◆ 매터(Matter) 표준의 급부상 및 Multi-Modal Interface 등 고객 경험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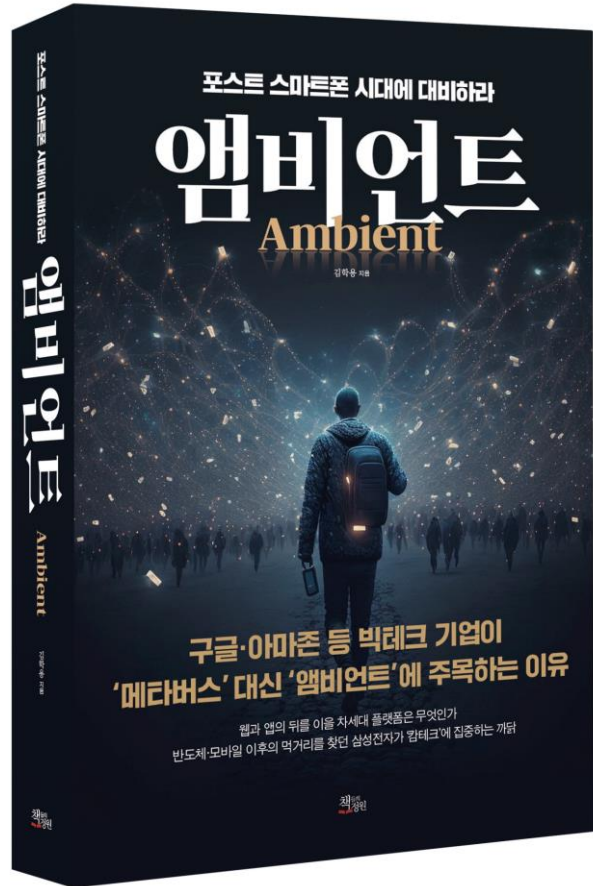
- 2022년 10월 발표된 스마트홈 연동 표준인 Matter 기반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전시
 - 아마존, 구글의 앰비언트 서비스, 삼성전자의 캠테크 서비스, 중국 기업들의 매터 기반 스마트홈 제품
 -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CES 2023의 최고 실패작 중 하나
- 음성을 넘어 사용자 ID, 존재(presence), 동작, 향기, 촉감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동시에 이용
- 무선 충전 및 보이지 않는 컴퓨팅(Invisible Computing) 기술의 상용화 본격화



hidden interface or shy tech



앰비언트 –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하라



반도체.모바일 이후의 먹거리를 찾던
삼성전자가 캠펙에 집중하는 까닭!!
(LG전자도 앰비언트 컴퓨팅에 주력 예정, 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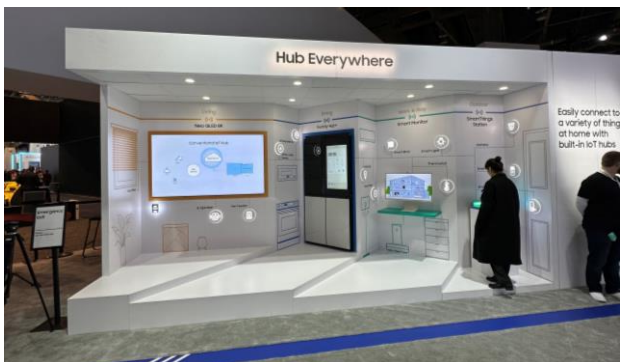
구글,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
메타버스 대신 앰비언트에 주목하는 이유!!

Web과 App의 뒤를 이을
차세대 플랫폼은 무엇인가?

AI Everywhere

◆ 모듈로써의 인공지능, 실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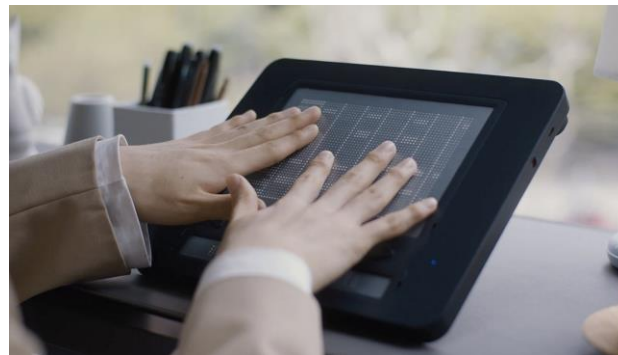
- 자율주행 자동차, AI 스피커 외에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시작한 인공지능 → AI의 모듈화
– 생활 서비스, 건강 관리, 엔터테인먼트,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, 농업 등
- AI 칩셋 및 에지 컴퓨팅 장치의 등장 → 주요 칩셋 제조사 및 아마존, 구글의 지능형 컨트롤러 등
- 사용자 데이터의 확보 및 Interface Everywhere 전략이 중요 → 삼성전자는 Hub Everywhere 전략 π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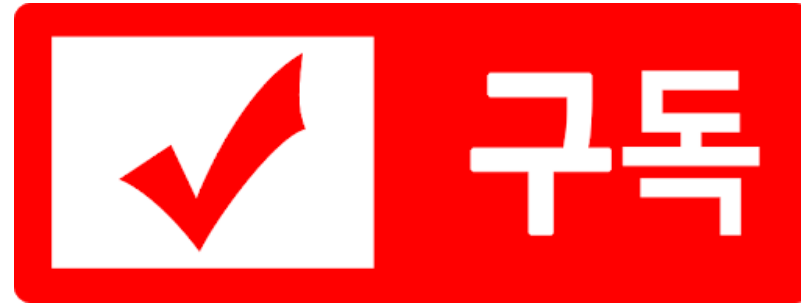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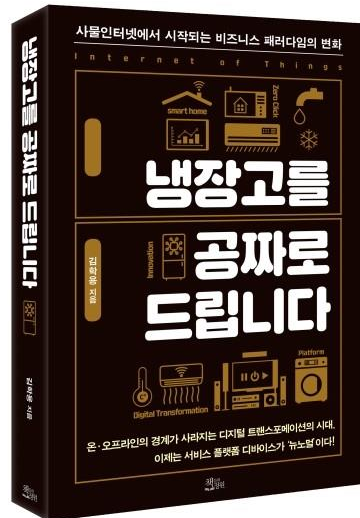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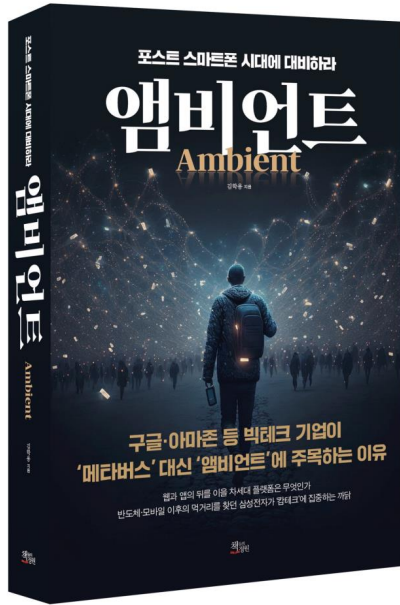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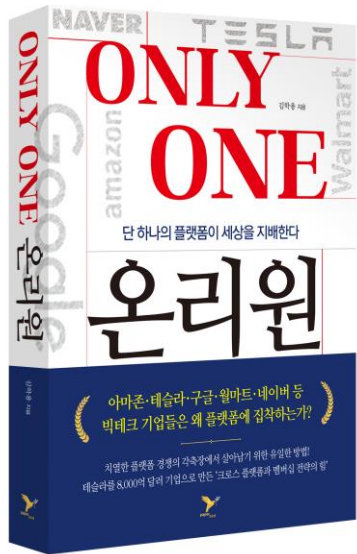


건강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

◆ 웨어러블을 넘어선 헬스케어 장치와 장애인/노약자를 위한 제품들

- 수면 관련 제품 및 기술 - LG전자의 뇌파 측정 장치, Asleep, 10 minds 등 10여 사 참가
- 공기질, 방향, 소변,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- iSyncWave, Wemorii 등
-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로봇, 웨어러블 로봇, 휠체어, 변기 등
- 스마트 청진기, 로레알의 합타(HAPTA) 등





iotstlabs@gmail.com

010-4711-1434